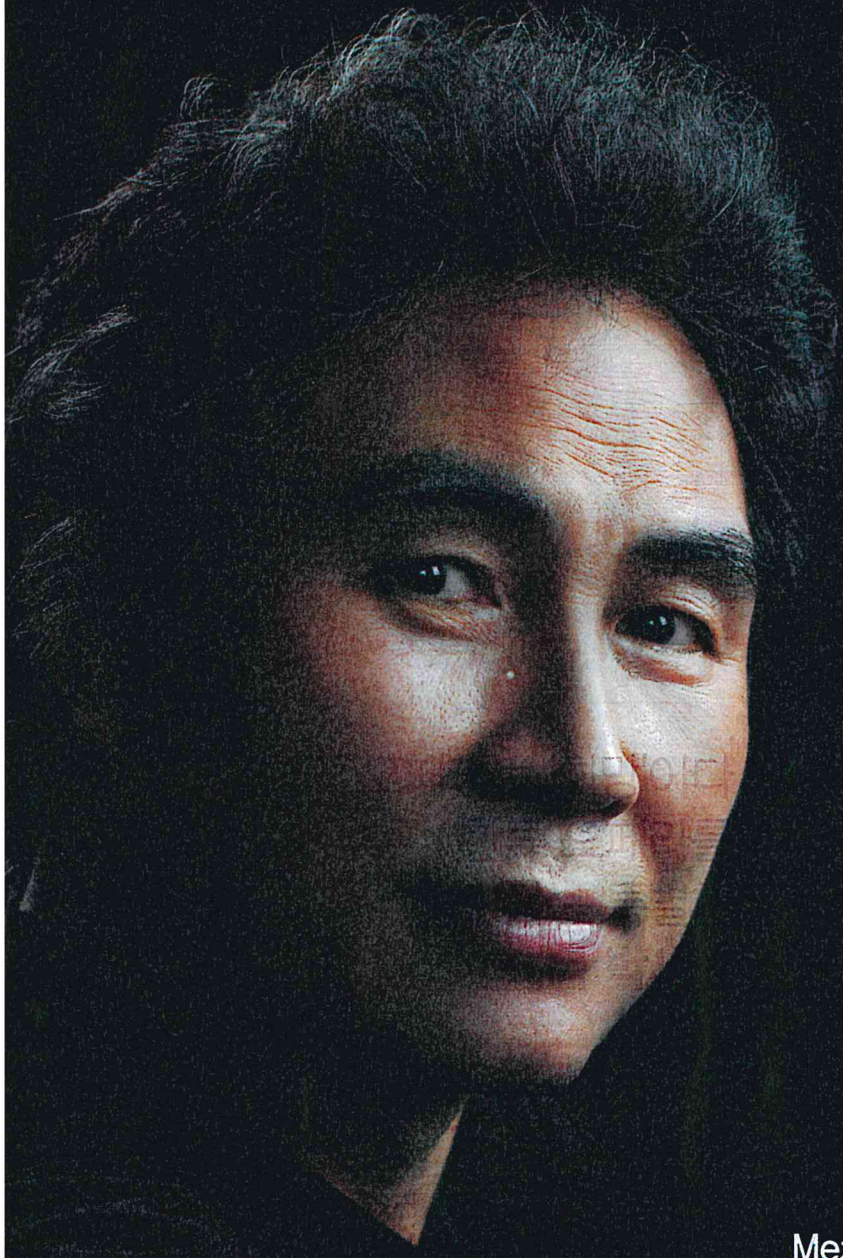


음악저널

The Classics and Arts



1

JANUARY
2014 VOL. 289

COVER STORY

한국 오페라는 '희망'이다
한류 오페라를
설계하는 특별한
테너 박세원

SPECIAL INTERVIEW

음악저널 제24회
신인음악상 수상자
Mezzo sop. 정미영 Va. 정수지 Cb. 허유희

MASTER STORY

문화융성 2014년을 말하다
김동호 vs 이남진



연출가 **윤송아**가 전하는
테너 **이영화**의 **새해소망 콘서트**

‘2014 胡蝶夢 꿈에서 만난 장자의 나비’



연출가
윤송아

윤송아 프로필

“노란 호랑나비의 날갯짓은 봄날의 희망입니다. 그 희망의 날개 위에 꿈을 실어 두 번째 ‘예술의 융복합’을 연출해 봅니다. 베네치아 국립 음악원 졸업 후 현지에서 연출 뿐 아니라 배우, 작가, 피아니스트로서 다양한 예술과 사람들을 만나고 교감하며 마음껏 예술 작업을 할 수 있어 행복하지만 한편으로는 늘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설임은 후회를 남기지만 실수는 깨달음을 남깁니다. 2014년에는 마음껏 꿈꾸고 행동하는 로맨티스트가 되어 생기 넘치는 새해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테너
이영화(카파무지카 예술감독)

이영화 프로필

“처음인 듯 설레임을 가지고 두 번째 ‘예술의 융복합’에 참여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구도자적 정진을 통해 예술의 본질을 추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한 사랑의 음악을 헌정하고자 하는 저의 포부를 담았습니다. 교육자로서 단국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지휘자와 성악가로 활동하는 일정 속에 새해 소망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내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아름다운 꿈결같이 소중한 특별한 순간입니다. 변화는 발전을 의미합니다. 2014년에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오는 모든 것들과 소통하고 융합하여 여유 만만한 새해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카파무지카(CAFAMUSICA)

예술의 본질은 새로움을 향한 열망 안에서 충족된다고 믿는 이영화는 음악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은 꿈을 가지고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문화협회 '예술의 친구들(Amici dell'Arte)'을 설립하였다. 이어 2006년 한국에 '카파무지카(CAFAMUSICA)'가 창단되면서 이들은 국내외의 다양한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독창회, 오케스트라, 오페라, 해외 연주 기획, 서적 출판 등 장르를 뛰어넘어 다양한 예술 활동과 기획을 하며 더 폭 넓은 예술의 융복합을 시도해왔다. 카파무지카(CAFAMUSICA)는 소통과 공감으로 예술의 융복합을 시도하는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이다. 라틴어로 '존귀함, 사랑'을 뜻하는 CARITAS (카리타스)와 '봉헌함'을 뜻하는 FANO(파노)가 더해져서 사랑과 존귀한 음악을 헌정하는 음악 단체 라는 뜻을 가진다. 이탈리아어로 '화목한 가족'을 뜻하는 CARA FAMIGLIA(카라 파밀리아)의 준말로서 '다양한 사람들과 음악 안에서 화목한 가족처럼 예술적 심미감을 공유하자'는 설립 취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테너 이영화의 새해소망 콘서트

최고의 예술가들이 협업을 하면 어떤 복합 예술 장르가 만들어질까...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과 함께 새해소망을 만들어 관객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은 카파무지카의 꿈은 지난 2013년 1월 19일 예술의 전당 IBK홀 무대에서 실현되었다. 많은 이들의 감동과 격려에 2014년 1월 21일 동일한 장소에서 '2014 胡蝶夢 꿈에서 만난 장자의 나비'라는 주제로 두 번째 새해소망 콘서트를 이어간다. 특히 올해에는 2014년 5월 10일 이탈리아 아솔로 국제 비엔날레 개막공연으로 초청받아 국악과 한국무용, 한국을 대표하는 보석, 한복 명장들과 함께 무대를 꾸민다. 이번 '테너 이영화의 새해소망 콘서트'를 통해 세계 속에서 한국과 서양의 문화의 융복합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되는 공연이라 할 수 있겠다.

각 분야 최고의 예술가들이 함께 협업하여

새로운 예술 장르 창조

이번 테너 이영화 독창회에 함께 참여하고 협업하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 그리고 윤송아 연출가가 소개하는 특별한 콘서트 가이드이다. "공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피아노 반주에 로마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졸업 후 국내외에서 독창회 및 콘서트 850여회 반주한 성신여대 대학원 반주과 이영민 교수, 단국대에 재직중인 대금 이진석 교수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중요제례악 이수자이고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20호 대금정악 이수자이다. 안무를 맡은 박미영 교수는 현재 한양대학교 생활무용예술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중요무형문화재 97호 '살풀이 춤' 이수자, 중요무형문화재 27호 '승무' 전수자이기도 하다. 또한 마음을 글씨에 담은 작가, 작업실 '오로지'에서 한글의 아름다운 글꼴을 연구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글씨 예술가인 박병철 캘리그래피스트는 전년에 이어 동참하였고, 홍익대학교 판화과를 졸업 후 판화에서 드로잉, 페인팅까지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는 신지연 작가는 음악회 전체 미술을 도맡아 작업하고



'2013 테너 이영화의 새해소망콘서트' 상황



아솔로 극장



김찬
보석 가공 명장



이소정
한복 명장



김신양
주얼리 디자이너



캘리그래피스트
박병철


있다. 또한 올해는 두 사람의 한국을 대표하는 명장이 함께 한다. 한 사람은 태극 문양, 2002 월드컵 기념 축구공 등 다양한 보석 커팅 특허를 가지고 있는 한국 보석 가공 분야에 유일한 김찬 명장이다. 그의 브랜드 'Kimchans jewelry'는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 그의 딸 김신양 주얼리 디자이너와 함께 작품을 만든다는 면에서 의미 있다. 이번 공연에서도 김찬 명장과 김신양 디자이너에 의해 천연보석으로 장식된 족두리가 선보인다. 또한, 독일 뮌헨 국제수공예박람회,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등 세계 속에서 한복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이소정 명장의 참여로 콘서트를 어떻게 장식하게 될 것인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한편, 2014년 '테너 이영화의 새해 소망 콘서트'는 올해 이탈리아 아솔로 국제 예술 비엔날레의 개막 공연으로 초청되어 2014년 5월 10일 아솔로 극장(teatro di asolo)에서 앵콜 공연된다. 한국 아트 앤 컬처 프로모션 인퍼니티 김성준 대표의 제안으로 아솔로 비엔날레 총감독 알렉산드로 스킨라토(ALESSANDRO SCHIRATO)는 한국을 2014년 주빈국으로 지정하고 우리 문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관은 한국의 인퍼니티와 이탈리아의 체네인터내셔널(대표: ALESSANDRO ZUIN)이 공동으로 기획·주관하며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테너 이영화의 벨칸토 창법과 우리 한국인의 예술혼으로 동 서양을 관통하는 새로운 융복합의 유형을 선보일 개막 공연에 대해 현지에서도 기대감이 고무되어 있다.

새해 계획 그리고 음악 메시지

연출가는 관찰자인 것 같으며 공간과 인물들의 특징을 관찰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이 연출이라고 생각된다는 윤송아는 자신의 길이 주목받기보다 색다른 방향을 가는 것일 뿐이라며 겸허하나 철학이 깃든 소신을 보여준다. 더불어 피아니스트 출신에서 오페라 연출에서 이탈리아 연극 배우까지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경험한 그녀가 전하는 2014년 새해 계획이다.

"먼저 새해 소망 콘서트를 소망 다짐 콘서트로 일 년 내내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다. 예술의 융복합을 다양하게 시도하여 각 예술가들과 경계 없이 교류하며 작업하고 싶은 것, 그리고 한국 오페라의 세계화와 장기 공연화 등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테너 이영화 독창회'처럼 일반적인 공연이 아닌, 소통과 공감으로 예술의 융복합을 시도하는 음악극 형식의 독창회를 통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며, 청중에게 전하고 싶은 그녀의 메시지이다.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는 것이 예술의 본분이라 생각한다. 특히 오페라를 하면서 잘난 주인공 하나가 아닌 여러 예술가가 함께 힘을 합쳐 만들어 내는 예술의 가치와 위대함을 배웠다. 모두와 함께 천천히 멀리 가고 싶다. 한 분야에서 최고를 이룬 예술가들의 협업은 서로를 빛나게 해준다. 그들은 자신의 실력에 대한 자부심과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고 피력하는 그녀의 에너지 넘치는 예술혼에 공감되며 함께 힘이 솟는다. 내 마음은 이미 예술의 전당 IBK홀에 달려감을 느껴본다.  글·김순화